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사학위논문

아동의 또래관계와 사회적 기술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제주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임 지 현

2009년 8월

아동의 또래관계와 사회적 기술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지도교수 김 양 순

임 지 현

이 논문을 가정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8월

임지현의 가정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印)

위 원 (印)

위 원 (印)

제주대학교 대학원

2009년 8월

dCollection @ jeju

목 차

국문초록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4

Ⅱ. 이론적 배경 ····· 5

1. 또래관계 ····· 5

2. 사회적 기술 ····· 9

3. 학교생활적응 ····· 13

Ⅲ. 연구 방법 ····· 15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 15

2. 측정도구 ····· 16

3. 분석방법 ····· 19

Ⅳ. 연구결과 및 해석 ····· 20

1. 아동의 또래관계 ····· 20

dCollection @ jeju

2. 아동의 사회적 기술 ····· 23

3.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 26

4. 아동의 또래관계와 사회적 기술의 상관관계 ····· 29

5. 아동의 또래관계와 학교생활적응의 상관관계 ····· 31

6. 아동의 사회적 기술과 학교생활적응의 상관관계 ····· 33

Ⅴ. 결론 및 제언 ····· 35

1. 결론 ····· 35

2. 제언 ····· 37

참 고 문 헌 ····· 39

Abstract ····· 42

부 록 ····· 46

dCollection @ jeju

표 차례

<표Ⅲ-1> 조사대상 분포 ····· 15

<표Ⅲ-2> 또래관계 검사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 16

<표Ⅲ-3> 사회적 기술 검사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 17

<표Ⅲ-4> 학교생활 적응 검사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 18

<표Ⅳ-1> 아동의 또래관계 ····· 20

<표Ⅳ-2> 아동의 사회적 기술 ····· 23

<표Ⅳ-3>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 26

<표Ⅳ-4> 또래관계와 사회적 기술의 상관관계 ····· 29

<표Ⅳ-5> 또래관계와 학교생활적응의 상관관계 ····· 31

<표Ⅳ-6> 사회적 기술과 학교생활적응의 상관관계 ····· 33

dCollection @ jeju

국문초록

아동의 또래관계와 사회적 기술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임 지 현

제주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지도교수 김 양 순

본 연구는 또래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요인에 따라 또래관계와 사회적 기술,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고 우호적인 또래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주지역 4개 초등학교 남자아동 284명, 여자아동 260명 총 54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측정도구로는 또래관계 척도,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아동의 사회인구학적요인에 따른 또래관계와 사회적 기술,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고 이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별에 따른 또래관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또래관계의 5개의 하위영역 중 갈등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도움, 배타성, 인정 그리고 자기표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아동이 남자아동보다 또래관계에서 타인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상호간의 인정 태도 및 수용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학년에 따른 또래관계의 차이를 살펴보면 또래관계의 하위영역 중 자기표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에서 6학년 아동들이 5학년 아동들보다 자기표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다문화의 친구 유무에 따른 또래관계의 차이를 살펴보면 또래관계의 하위영역 중 인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 친구가 있는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상호간 인정 및 수용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친한 친구 수에 따른 또래관계의 차이를 살펴보면 또래관계의 하위영역 중 도움, 인정, 갈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한 친구가 있다고 인지하는 아동이 친한 친구가 없다고 인지하는 아동보다 또래 간 도움정도가 높고 인정하고 수용을 잘하며 갈등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기술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기술의 4개의 하위영역 중 자기통제는 차이가 없었으나 협동성, 주장성 그리고 공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아동이 남자아동보다 또래집단 안에서 도움을 주고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주장하며 타인에 대한 이해 및 공감하는 사회적 기술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년에 따른 사회적 기술의 차이를 살펴보면 사회적 기술의 모든 하위영역과 유의미한

dCollection @ jeju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의 친구 유무에 따른 사회적 기술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기술의 모든 하위영역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문화의 친구가 있는 아동들이 그렇지 않는 아동들보다 상호간 협동이 잘 이루어지고 자기의 생각을 잘 주장하며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정도가 높고 자기감정 통제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친한 친구 수에 따른 사회적 기술의 차이를 살펴보면 사회적 기술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한 친구가 있다고 인지하는 아동이 친한 친구가 없다고 인지하는 아동보다 또래 간 도움 정도가 높고 주장성 및 타인의 느낌과 감정을 공감하고 갈등 상황에서의 자기통제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아동의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교생활적응의 4개의 하위영역 중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 그리고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 중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과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에서 유의미한 타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5학년 아동들이 6학년 아동들보다 학교공부와 학교 규칙에 대한 적응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문화의 친구의 유무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보면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 중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과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문화의 친구가 있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학교친구와의 관계가 좋으며 친구와의 적응력이 높고 학교규칙에 적응을 잘 적응함을 알 수 있다. 친한 친구 수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한 친구가 있다고 인지하는 아동이 친한 친구가 없다고 인지하는 아동보다 담임교사, 학교친구와의 관계가 좋으며 수업태도나 학습정도가 높으며 학교규칙을 준수하고 잘 적응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아동의 또래관계와 사회적 기술 및 학교생활적응의 상관관계는 모두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사회적 기술이 좋은 아동이 자신의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고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며 또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또래관계와 사회적 기술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아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이나 주변 환경에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적절한 사회적 기술이 필요하며 이는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dCollection @ jeju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이 태어나 가정에서 최초로 맺는 인간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이다. 부모와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애착을 형성하고 신체적·정신적 사회 정서적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며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배운다.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통해 개인의 독특한 정체감을 형성하고 발달해 나간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산업화로 인해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하면서 가정 내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감소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아동은 부모다음으로 또래와 어울리는 시간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들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아동은 또래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해 나간다. 또한 사회가 핵가족화 되면서 출산율 기피 현상으로 인해 자녀수가 감소하였고 가정 내의 놀이친구가 될 수 있는 형제·자매가 충분하지 않아 또래와의 관계가 요구되면서 또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

아동은 유치원, 학교, 학원 등 여러 유형의 교육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또래와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또래가 주는 영향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아동은 또래들과 함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면서 원만하게 또래관계에서 형성할 수 있다.

친구들과 서로의 관심사를 이야기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정서적으로 지지하면서 친밀한 우정관계를 형성해 나가게 된다. 아동들은 서로 비슷한 성향이나 행동 특성을 공유한 아동들끼리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오랫동안 지속하게 된다.

그러나 친구들 사이에 의견 충돌과 같은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친구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이 과정에서의 의견대립 혹은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 또래들로부터 거부당하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인 또래관계로 인해 외로움, 소외, 불안감과 같은 부적응 문제를 야기 시킬 수도 있다.

dCollection @ jeju

또래관계는 수평적이고 상호적인 관계로서 평생에 걸쳐 그들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대인관계 기술, 태도, 경험을 얻게 된다. 특히 사회적 기술이 아동이 속해있는 또래집단에서 뿐만 아니라 아동 자신이 겪는 심리적 경험 및 공격성도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사회적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달해나가고 훈련되어야 한다.

학교는 학령기 아동에게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중요한 생활의 장이므로 아동은 학교에서 교사와 또래들과 함께 생활하며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고 표현하는 것을 학습하고 대인관계 기술을 익히며 사회적 관계에서의 갈등에 대처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발달시키게 된다.

학교생활적응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만약 아이들이 또래관계 내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성공적으로 적응한다면 그들은 전체 학교생활과 학교 내 공식적 평가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반대로 또래관계 내의 적응이 성공적이지 못한 아이들의 경우 학교의 공식적 평가는 물론 학교생활 전반의 적응에서 도태될 것이며, 이는 곧 학교이외의 또 다른 사회구조에서도 부적응이라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이호선, 2001). 이처럼 학교생활적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아동 개인의 성장과 발달 및 성인이 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이 학교생활에서 또래와의 관계나 학교 교사와의 관계에서 만족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는지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자기 욕구를 바람직하게 해결하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관계를 유지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학교생활에서는 서로 원하는 욕구와 달성하려는 목표의 차이로 인하여 친구와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쉽게 짜증을 내거나 분노하게 되며 때로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게 된다.

많은 수의 아동들이 교실,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사회적 기술의 부족과 수줍음으로 인해 친구들에게 수용되지 못하고 대인관계에서 친밀감과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며 또래관계에서 고립되거나 원만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숙, 2003).

dCollection @ jeju

본 연구에서는 또래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또래관계와 사회적 기술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고 우호적인 또래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dCollection @ jeju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또래관계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사회적 기술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아동의 또래관계와 사회적 기술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5. 아동의 사회적 기술과 학교생활적응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6. 아동의 또래관계와 학교생활적응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dCollection @ jeju

Ⅱ. 이론적 배경

1. 또래관계

또래란 비슷한 연령의 비슷한 사회적 위치에 속하며 비슷한 관심을 갖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대상을 말한다.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 발달 및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래관계(Peer Relationship)와 친구관계(Friendship)는 흔히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구분이 필요하다. 또래관계는 나이나 수준이 비슷한 집단 내에서 맺는 일반적인 관계를 말하며 생물학적인 연령이 강조된다. 또한 아동의 또래관계는 주로 또래 집단 내에서의 아동의 지위나 또래 수용도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한 집단 내에서 맺는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의미한다(구지은, 2002). 반면, 친구관계는 주로 연령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개인의 친밀함을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자발적인 상호관계를 의미한다.

위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또래관계를 정의하면 비슷한 나이와 발달 특성을 갖는 아동들의 사회적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 관계인 또래와 학교생활적응에서의 학교친구를 구분하여 모두 설명하고자 한다.

Erwin(2001)은 또래관계가 아동이 맺고 있는 다른 많은 관계와 구별되는 두 가지 특징으로 평등과 힘의 수준을 들었다. 즉 또래관계는 관계에 참여하는 양쪽이 모두 비슷한 정도로 관계에서 도움을 얻고, 관계에 기여하며, 또한 힘의 균형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또래관계는 아동의 사회성 및 대인관계 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아동이 태어난 후 초기의 사회성 발달은 부모와의 애착형성에 기초를 두게 되는 것이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아동은 가정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점차 접촉대상이 확대되어 학교나 또래집단의 비중에 커지게 된다(정옥분, 2007). 아동들은 자기 자신과 비슷한 연령의 또래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며 점차 또래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된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와 학원 등에서 생활하면서 또래와 함께 보내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또래들 사이의 인정이나 인식에 의존하게 되면서 또래집단에 소속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dCollection @ jeju

아동의 또래관계는 성인과의 관계와 차이가 있다. 성인과의 관계에서는 수직관계로서 상호작용에서 화가 나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떼를 쓰거나 울면서 성인의 도움으로 일을 해결하게 되지만(최석란, 2002), 아동의 또래관계에서 문제해결 과정을 성인과의 관계에서 하는 행동을 보인다면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또래집단에서 소외 될 것이다. 이렇듯 또래관계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사회적 기술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아동은 또래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역할을 갖게 되며 서로 강화와 모방을 통해 배운다. 그리고 또래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을 통해 아동은 상호간의 협상하고 타협하는 기술을 배우므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울 수 있다(최석란, 2002). 이는 또래집단에서의 또래관계 경험은 아동으로 하여금 사회적 상호교환을 통하여 사회 실제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 주며, 이러한 사회에 대한 이해가 자기이해로까지 확장하게 되어 자신에 대해 새롭게 지각할 수 있게 한다(Youniss, 1980; 정성예, 2006 재인용).

선행연구에서 보면, 또래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어린 시절 또는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는 청소년이나 성인이 되어서도 친구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집단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는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기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 재인용). 어린 시절 아동이 바람직한 또래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공격적·정서적 문제를 나타내는 경우 자신의 정신 건강에 문제를 지닐 수 있으며 청소년기의 비행·학교 폭력등과 관련이 있고 문제행동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그들의 사회적 환경은 급속히 변하고, 가정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매우 많아진다. 그들의 활동중심은 학교가 되며 친구는 아동의 성장발달에 매우 중요해진다. 친구를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 방법을 터득하고 자신이 속한 문화의 가치관과 행동규범을 획득하면서 사회화된다(조복희 외, 1999).

특히 또래집단이라는 관계 속에서 그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중심적인 행동과 태도를 현실에 맞게 변환시키면서 상호 의존, 규칙, 협력, 사회적 요구와 같은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여 집단 속에서 필요한 요령을 습득하게 되어 보다 넓은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자질을 기르게 된다(이경우·서영숙, 1984).

dCollection @ jeju

아동들은 또래를 통하여 새로운 것을 익히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하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상하 수직적인 관계를 갖는 성인들과 달리 또래 간에는 수평적 상호작용을 갖으면서 다른 또래 친구들과의 동등한 과계를 통해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며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발달시킨다. 그리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게 지적 자극을 주며 사회·정서적인 측면의 성장을 도와주기 때문에 사회적 발달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 발달에도 영향을 준다. 즉 또래와의 접촉은 아동들 상호간에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여 이들이 보다 자유롭고 활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발달 환경을 제공한다. 이 속에서 아동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스스로의 정체감을 형성해 가고, 성공적인 대인관계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익히게 되며,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고받음으로 해서 신체적, 인지적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사회적 지지와 안정감을 얻게 된다"(Bukowski & Hoza, 1989 재인용)

또래관계는 성인들과는 다른 자신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그 문화에 맞는 가치관과 행동의 형태를 갖고 상호작용한다. 또래관계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의 시간을 또래 친구들과 함께 보내며 성인보다는 또래들의 인정이나 인식에 더욱 의존하게 되며 집단 소속감이 확장되게 된다. 그리고 또래관계를 통해 아동의 정체성 확립이 점차 이루어지고 이를 지지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한 모델을 제공하게 된다(최석란, 2002).

특히 어린 시절에 또래관계에 필요한 사회적 지식과 기술을 배우게 되며 사회성 발달은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관련이 깊다는 점을 생각할 때(최석란, 2002), 아동기 시기의 또래관계는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은 또래들의 행동을 모델로 하여 이들은 모방을 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래의 어떤 특정한 행동에 대한 관찰을 통해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다른 또래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행동의 결과를 배울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모델은 새로운 상황에서 아동이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가를 제시해 주기도 한다. 모델링의 영향 정도는 그 모델에 대한 관찰자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데 긍정적인 모습을 가진 모델을 모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또래의 부정적인 모델을 모방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족에게서 아동 스스로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을 때 또래에게 의지하게 되면서 자칫 비행집단에서 사회화되고, 또래들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어울리게 되면서 비행청소년이 될 수

Collection @ jeju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갖는다(신유림, 2007).

아동들은 또래 관계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다.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아동은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아동이 되는데 건강하고 활발하며 주도적이고 안정적이다. 또한 애정이 있으며 사려 깊고 수용적인 특성을 보인다. 반면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배척당하거나 무시당하고 거부당하는 등 부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아동인 경우 점차 또래 집단에서 소외당하게 되면서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고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우울증, 사회적 불안, 학교 부적응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차후에 사회적 문제로 변모할 가능성을 갖게 된다(심희옥, 2000).

또래관계에서 아동들은 사회적 역할 연습을 하게 되는데, 이는 아동에게 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바뀌는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또래관계에서 개인의 책임을 이해하고 집단에 속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사회문화적 역할을 배우게 된다. 따라서 또래관계는 아동들이 성공적인 사회적 관계를 학습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술을 연습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최석란, 2002).

아동이 바람직한 또래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극소수의 대인관계에만 한정 된다며 다른 사람들을 접하였을 때 심하게 수줍어하거나 현실 도피적인 성격양상을 띠게 된다. 이처럼 또래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며 또래관계는 심리사회적 적응 및 다양한 영역에서의 발달과 적응에 매우 중요하다.

송명자(1995)는 또래가 미치는 영향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또래는 사회적 지원과 안정감을 제공해 주며, 서로에게 지지, 격려, 피드백을 해줌으로써 스스로 유능하고 매력적이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해준다. 둘째, 또래집단은 사회적 비교의 기능을 갖는다. 셋째, 또래는 서로에게 중요한 역할 모델의 기능을 갖는다. 또래는 함께 놀이, 운동, 학습을 하면서 서로의 모습을 관찰하고 모방해 이를 내면화함으로써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넷째, 또래는 서로에게 중요한 강화자가 된다. 아이들은 부모뿐만 아니라 또래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보여주는 칭찬과 강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이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바꾸어 나가기도 한다. 친한 또래가 있는 아동은 친구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의논할 수 있으므로 또래 괴롭힘으로 인한 심리적 손상이 완화될 수 있고 친구로부터 괴롭힘으로 인한 갈등과 위협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얻을 수 있다(Bukowski, Boivin, & Hoza, 1994; 김혜정, 2005; 이승연, 2009 재인용).

dCollection @ jeju

그러므로 아동이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동의 사회성 발달뿐 만 아니라 앞으로 성장하면서 마주치게 되는 환경에 자연스럽게 적응해 나가고 보다 행복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비슷한 연령의 일반적 관계인 또래와 학교생활적응에서의 학교친구를 구분하여 모두 설명하면서 긍정적인 우정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기술이 필요하며 이는 학교생활적응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사회적 기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나서 사회 속에서 여러 형태의 사회적 과정을 거쳐서 사회화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형성되는 인간성을 일반적으로 사회성(sociability)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성은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성질이며 다른 사람과 사귈 수 있은 개체의 능력, 또는 개체의 사회적 적응성, 대인관계의 원만성이라고 할 수 있다(강명구, 1999).

아동의 사회적 기술과 상호작용 기술은 학교생활에서 성공적인 적응을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적 기술이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게 간주되며 동시에 상호 호혜적인 방법으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능력(Comby & slaby, 1997; 유연수··이양희, 2001)이며 사회적 기술의 특성들로는 친밀감, 상호작용 반응과 개인의 사회적 행동이나 특별한 환경에서의 대처 기술과 행동 즉 학교에서 나타나는 행동이나 작업행동 들을 들 수 있다(Gresham, 1989; 김여경, 2003).

사회성은 타인과의 공동적인 사회생활을 원만히 해내고 잘 적응 할 수 있는 인성적 특성이다. 인간은 출생과 더불어 성장하고 발달해 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고, 이를 통하여 타인의 존재를 확인하고 타인의 역할을 대행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관계유지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며 여러 가지 행동으로 이를 표출하게 되는데, 사회성의 발달은 이런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최미영, 1993).

dCollection @ jeju

그리고 사회적 기술이란 사회적 능력 (social competence)이라는 광범위한 개념 속에서 정의되어지는데, 사회적 기술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개인적이며 특별한 행동능력이다. 즉 사회적 기술은 사회적 맥락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친사회적 행동 능력을 말한다.

Phillips(1985)는 사회적 기술을 어떤 구체적인 요소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상의 기능으로 대인관계에서 사용되는 학습된 행동이며 타인의 권리, 요구, 행복,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타인과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Odon(1992)은 사회적 기술은 타인에 대한 주의집중 행동,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려는 행동과 같은 사회적 주도, 주도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적 반응이다. 그리고 주도·반응 계열을 넘어서 상호 작용을 확장하려는 행동과 같은 유지 반응이기도 하다. 대인관계의 갈등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 기술, 공유하기, 타인 돕기, 애정 표현과 같은 친 사회적 기술, 언어적·비언어적 몸짓에 반응하는 것이며 상대와 상호작용의 관계를 성립 유지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화술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지순연, 2001; 이미라, 2007)

Ford(1984)는 사회적 기술을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기술이라고 말하였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회적 기술은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며, 사회적 기술이 좋은 사람은 그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술은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므로 사회적 기술이 좋은 유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고 유지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 유아는 부적응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기술은 인간관계에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며 사회적 기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인간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O`Mally, 1997; 이은정, 2009).

Perry(1987)와 그 동료들은 사회적 능력을 사회적 상호작용 측면 중 또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아동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가지고, 아동에게 있어서 우정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은 사회적 능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사회적 능력을 환경 적응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회적 기술이란 환경으로부터 강화를 유지하고 얻기 위해서 대인관계에서 사용하는 학습된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Kelly, 1982).

dCollection @ jeju

Bellack 와 Hersen(1977)은 사회적 기술을 사회적 강화가 상실된 경우에도 고통을 겪지 않고 개인 상호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Mcfall(1982)은 사회적 기술이란 어떤 구체적인 요소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사의 기술이라고 하였고, Phillips(1985) 는 자신의 권리, 요구 또는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타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는 친밀감의 정도와 관련지어 사회적 기술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사회적 기술에는 다양한 상황적 특성들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회적 기술에는 일반적으로 또래관계에서의 유능성, 대인관계에서의 친밀성, 다양한 상황에서의 활동 전략을 계획하는 능력 및 타인 조망능력 등이 포함된다.

현대사회의 산업화와 여성의 취업률 증가로 인하여 아동이 가정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상호작용하는 대상이 부모에서 학교나 또래집단으로 변화하면서 그에 대한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아동들은 긍정적인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기술을 습득하게 되며 자존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받게 된다. 학교생활에서 또래와 생활하며, 또래의 행동을 관찰하고 또래를 모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므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최석란, 2002).

청소년기 이전 단계의 아동이 또래집단을 선호하는 이유는 Erikson에 의하면 이 시기가 정체감 대 정체감 혼미 즉, 나는 누구이며, 인생에서 나의 역할을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단계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청소년기 이전의 아동은 또래관계를 정체성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또래관계는 아동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줄 뿐만 아니라 이를 지지해주며 성공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아동은 또래관계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다.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한 아동의 경우 수평적 구조로 또래 간에 사회성 발달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또래로부터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하는 등 사회성 발달이나 성격발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또래에게 거절당하는 아동이라도 친밀한 친구가 있다면, 또래거절로 나타날 수 있는 외로움이나 학교부적응, 반사회적 행동, 폭력, 비행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dCollection @ jeju

또래관계의 어려움을 갖는 아동인 경우, 높은 불안감, 낮은 자존감, 사회적 상호작용의 회피. 부족한 사회적 기술, 낮은 자기 주장성을 보이게 된다. 또한 또래관계에서 사회적 기술의 부족으로 인하여 또래에게 무시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은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학교에서 발달적으로 요구되는 역할 수행과 사회생활에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학습할 기회가 제한되므로 바람직한 사회적 기능을 배우지 못하게 되며 결국 이런 아동들의 사회적 기술은 더욱 나빠지게 되어 청소년기에 접어들어 성격, 학교생활 적응 등의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최석란, 2002).

그러므로 부모와 교사들은 아동이 원만한 또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래들과 상호작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습득케 하고 향상시켜주어야 한다. 또래관계에 적응하려면 의사소통 기술이 필요하며,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다른 사람과 조화시킬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고 상호관계 및 협동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사회적 기술은 또래집단의 경험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하게 된다.

Cole과 Cole, Kramer과 Gottman, Rubin에 의하면 또래는 특히 아동기 동안 사회적 관계망에서 매우 중요한 구성원으로, 또래와의 상호작용 기회는 사회성 발달을 증진시키는 것과 연관되었다고 하였다. 즉 또래 간의 상호작용은 아동이 유능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고 하였다(정옥분, 임정하, 1997; 이은혜, 2008 재인용).

아동기 또래집단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반응을 인지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기대에 따를 필요를 느끼게 되어 중요한 사회화 매체가 된다. 또한 자신의 행동과 모습에 대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갖는다는 믿음으로 나타나 다른 또래들보다 특별하게 보이려 하지 않고 같이 행동하려고 애쓰며 또래집단을 정체성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는 또래관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왜 계속해서 부적응 행동을 하며, 심지어는 더 부정적 반응을 획득해 나가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또래집단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보다 효율적으로 행동하는데 요구되는 사회적 기술이 결핍되어 있다.

둘째, 또래집단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그들이 또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기에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을 수 있다.

dCollection @ jeju

셋째, 또래집단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래관계가 중요한 문제인 것은 인간 발달이란 지속적이며 역동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기의 또래관계에서 형성된 인성이나 사회적 습성이 청년기와 성인기의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기에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가 좋은 아동들은 그들의 관계 속에서 잘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기술이 필요하며 이를 발달시켜야 함을 말하고자 한다.

3. 학교생활적응

학교에서 아동들은 공부뿐만 아니라 특별활동과 각종 학교행사에 참여함으로써 학교 담임교사와의 관계 및 학교 친구들과 관계를 맺으며 생활한다. 또한 아동들은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갈등 혹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점차 그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하나의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물론 학교생활에서 부적응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 안에서 마찰 없이 조화로운 관계를 이룰 수 있다면 이는 아동의 환경에 잘 적응하고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학교생활적응이란 아동이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에 개인과 학교 환경 사이에서 자신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조화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학교에서의 적응은 학교학습의 과정과 상황에서 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학교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교육적 여건들을 자신의 요구에 알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이 그 여건에 바르게 수용되는 것을 의미한다(서순자, 2002).

노숙영(1997)은 학교생활적응을 학습자가 학교상황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는 일련의 어떤 노력으로서, 학습자 자신의 요구를 학교 내의 현실적 가능성에 맞추어 대처하려고 하는 학습자의 시도로 규정하였다. 정유진(1999)은 학생의 모든 행동이 학교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잘 조화되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시킴으로써 교사와 다른 학생 등 의미 있는 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가며 학교

dCollection @ jeju

수업에 적극적이고, 학교 규범에 순응하여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가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아동들은 학교라는 생활 장면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며 광범위한 경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는 학교를 공부하는 곳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학교는 아동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회적 활동의 장(場)이기도 하다(정옥분, 2007).

학교 환경 안에서 아동이 부적응 상황에 놓여있다면 부정적인 상황에 고립되어 버릴지 모른다. 예를 들어 담임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학교 공부에 흥미 있는 태도를 가지며 학교 친구와 원만한 관계를 갖는 아동은 학교 환경에 적절하게 긍정적으로 적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친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학교생활에 흥미를 갖지 못한 경우, 학교에 다니기를 기피하고 무단결석을 하는 등 학교생활에서 부적응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학업성적이 향상되고 행동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의 성장은 물론 학교와 사회발전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구혜숙, 1995; 이호선, 2001 재인용).

Shaffer에 의하면 학교는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회적인 공식적 기관들 중 학령기 후기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에 가장 비중 있는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생활의 장으로 간주하였다. 즉 학령기 후기 이후 아동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므로 학교는 이들 아동의 지적, 사회 정서적 발달에 기여하는 중요한 성장환경이며 사회화 과정의 대행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Reinert는 학교생활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은 여러 가지 사회·정서적 문제를 보이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이경님, 2006; 이은혜, 2008).

이처럼 학교교육은 개인적·사회적으로 잘 적응하여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보다 행복하고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데 목적을 두므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은 아동의 정상적 성장과 발달 및 원만한 생활 유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유정실, 2004; 이미라, 2007).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또래집단에서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잘 적응하게 된다면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교생활적응도 잘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dCollection @ jeju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예비조사는 2008년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2008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19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4개 초등학교들 중 5, 6학년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이 중 남자아동 284명, 여자아동 260명으로 총 544명이며 연구대상 분포는 <표Ⅲ-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초기 청소년기 단계로 심리적·신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또래에 대한 인식 및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며 또래관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표Ⅲ-1> 조사대상 분포

(단위: 명)

학 교	학 년	성 별		전 체
		남 자	여 자	
A초등학교	5	35	32	67
	6	35	27	62
B초등학교	5	40	30	70
	6	29	38	67
C초등학교	5	41	35	73
	6	33	33	66
D초등학교	5	36	33	69
	6	35	35	70
총 합		284	260	544

dCollection @ jeju

2. 측정도구

1) 또래관계

아동의 또래관계 척도는 Ladd와 Kochenderfer, Coleman(1996)의 척도를 유선이(1999)가 번안하고, 이를 이호선(2001)이 수정한 또래관계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아동의 또래관계 검사는 5가지 하위변인으로 구성되는데 도움 요인 5문항, 배타성 요인 3문항, 인정 요인 3문항, 자기표현 요인 4문항, 갈등 요인 5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측정도구에는 '항상 그렇다'에 5점, '거의 그렇다'에 4점, '보통이다'에 3점, '거의 그렇지 않다'에 2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부여하였으며, 각 학생이 얻을 수 있는 점수는 20~10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또래관계의 Cronbach's α 계수는 .88이며 또래관계 하위요인의 Cronbach's α 계수 분포는 .68~.82사이이고 구체적인 것은 <표Ⅲ-2>과 같다.

<표Ⅲ-2> 또래관계 검사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영역	해당문항번호	문항수	α.
도 움	1, 2, 3, 4, 5	5	.82
배타성	6, 7, 8	3	.76
인 정	9, 10, 11	3	.73
자기표현	12, 13, 14, 15	4	.76
갈 등	16*,17, 18*, 19*, 20*	5	.68
또래관계		20	.88

* 역채점문항

dCollection @ jeju

2) 사회적 기술 검사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Social Skills Rating System: SSRS)는 Gresham과 Elliott(1990)가 학생의 사회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한 것이다. SSRS는 협동(cooperation), 주장성(assertion), 책임감(responsibility), 공감(empathy), 자기통제(self-control)의 5가지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용(3~18세 아동)은 협동, 주장성, 공감, 자기 통제의 4가지 하위변인으로 구성되는데 협동성 요인 9문항, 주장성 요인 10문항, 공감 요인 10문항, 자기 통제 요인 10문항으로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적 기술의 각 하위변인별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협동성은 남을 돕고 자료를 교환 또는 공유하며 규칙이나 지시를 따라는 여부를 말하며 주장성은 다른 사람에게서 정보를 얻고 또래로부터의 압력 또는 모욕과 같은 행동에 대한 반응을 말한다. 공감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느낌과 관점에 대해 관심과 존중을 보여주는 지에 대한 여부를 말하고 자기조절은 또래들의 놀림에 적절한 반응을 하고 타협을 하는 것과 같은 비 갈등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말한다.

Gresham과 Elliott(1990)의 SSRS-학생용의 신뢰도는 .83이며 측정-재측정 신뢰도는 .68이다. 본 연구에서는 Gresham과 Elliott(1990)의 SSRS를 문성원(1997)이 수정·번안한 척도 중 SSRS-학생용 39문항의 빈도 영역만을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에는 '항상 그렇다'에 5점, '거의 그렇다'에 4점, '보통이다'에 3점, '거의 그렇지 않다'에 2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으로 이루어진 5점 Likert 척도이다. 각 학생이 얻을 수 있는 점수는 39~195점이다.

본 연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사회적 기술의 Cronbach's α 계수는 .91이며 사회적 기술 하위요인의 Cronbach's α 계수 분포는 .73~.76사이이고 구체적인 것은 <표Ⅲ-3>와 같다.

<표Ⅲ-3> 사회적 기술 검사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영역	해당문항번호	문항 수	α.
협동성	6,9,11,14,17,31,35,36,37	9	.75
주장성	1,3,4,16,20,23,26,30,33,38	10	.75
공 감	2,5,8,12,21,24,25,28,29,39	10	.73
자기통제	7,10,13,15,18,19,22,27,32,34	10	.76
	사회적 기술	39	.91

dCollection @ jeju

3) 학교생활적응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및 그 하위요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본 연구는 홍상임(1994)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이호선(2001)이 수정하여 만든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검사는 4가지 하위변인으로 구성되는데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 요인 5문항,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 요인 5문항, 학교공부에 대한 요인 5문항,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 요인 5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측정도구에는 '항상 그렇다'에 5점, '거의 그렇다'에 4점, '보통이다'에 3점, '거의 그렇지 않다'에 2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부여하였으며, 각 학생이 얻을 수 있는 점수는 20~10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학교생활적응의 Cronbach's α 계수는 .90이며 학교생활적응 하위요인의 Cronbach's α 계수 분포는 .69~.83사이이고 구체적인 것은 <표Ⅲ-4>과 같다.

<표Ⅲ-4> 학교생활 적응 검사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영역	해당문항번호	문항 수	α.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	1, 2, 3, 4, 5	5	.81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	6, 7, 8, 9, 10	5	.70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	11, 12, 13, 14, 15	5	.69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	16, 17, 18, 19, 20	5	.83
학교생활적응		20	.90

dCollection @ jeju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척도에 따른 또래관계, 사회적 기술, 학교생활적응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또래관계와 사회적 기술, 또래관계와 학교생활적응, 사회적 기술과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와 일원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아동의 또래관계와 사회적 기술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dCollection @ jeju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또래관계

1) 아동의 또래관계

<표Ⅳ-1> 아동의 또래관계

(N=544)

	하위영역	도 움	배타성	인 정	자기표현	갈 등
성 별	남(n=284)	3.30 .85	2.86 .87	2.92 .87	3.09 .75	3.12 .70
	여(n=260)	3.76 .82	3.30 .90	3.15 .91	3.31 .74	3.19 .69
	t	-6.360***	-5.740***	-3.108***	3.562***	-1.005
학년별	5학년(n=279)	3.48 .91	3.00 .95	2.99 .89	2.99 .92	3.78 .76
	6학년(n=265)	3.56 .82	3.14 .86	3.07 .90	3.32 .95	3.70 .68
	t	-1.106	-1.816	-1.090	-4.059***	1.482
다문화 친 구	있다(n=141)	3.62 .87	3.12 .92	3.22 .88	3.23 .96	3.74 .70
	없다(n=403)	3.50 .85	3.06 .90	2.97 .90	3.13 .94	3.75 .73
	t	1.382	.737	2.730**	1.011	-.143
친한친구 수	없음(n=4)	14.75b 3.10	5.75 3.20	8.25b 4.57	9.25 6.40	15.50b 6.25
	1~3명(n=68)	15.60ab 4.70	8.76 3.16	8.26a 2.88	12.31 4.20	17.94a 4.38
	4~6명(n=123)	17.02ab 4.19	9.20 2.42	8.83a 2.63	12.67 3.73	18.32a 3.58
	7~9명(n=61)	17.89a 3.89	9.23 2.87	8.87a 2.94	12.57 3.68	18.80a 3.32
	10명 이상(n=288)	18.32a 4.22	9.36 2.68	9.45a 2.55	12.70 3.72	19.05a 3.41
	F	6.918***	2.317	3.435**	.938	2.602*

**p<.01, ***p<.001

dCollection @ jeju

<표Ⅳ-1>에 의하면 아동의 또래관계 전체 평균점수는 3.36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도움 3.52(SD=.87), 배타성 3.06(SD=.91), 인정 3.03(SD=.90), 자기표현 3.19(SD=.75), 갈등 3.15(SD=.70) 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들이 또래관계의 하위 영역 중 상호간의 도움을 주고 타인에게 자기를 표현하는 면이 다른 영역에 비하여 조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아동의 또래관계는 하위영역 중 도움, 배타성, 인정, 자기표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의 또래관계의 하위영역인 도움에서 여아(M=3.76)가 남아(M=3.30)보다 높게 나타났고 p<.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여자아동이 또래관계 안에서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배타성에서는 여아(M=3.30)가 남아(M=2.86)보다 높게 나타났고 p<.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인정에서 여아(M=3.15)가 남아(M=2.92)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났고 p<.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는 여자 아동이 상호간의 인정 및 수용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자기표현에서는 여아(M=3.31)가 남아(M=3.09)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났고 p<.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여자아동이 또래관계에서 상호간의 자기표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또래관계의 하위영역 중 갈등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학년에 따른 아동의 또래관계는 하위 영역 중 자기표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6학년(M=3.32)이 5학년(M=2.99)보다 높게 나타났고 p<.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6학년 아동들이 또래관계에서 5학년 아동들보다 자기표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동의 또래관계의 하위영역 중 도움, 배타성, 인정, 갈등에서는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 친구의 유무에 따른 아동의 또래관계는 하위 영역 중 인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문화 친구가 있는 아동(M=3.22)이 다문화 친구가 없는 아동(M=2.97)보다 높게 나타났고 p<.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다문화 친구가 있는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상호간 인정 및 수용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동의 또래관계의 하위영역 중 도움, 배타성, 자기표현, 갈등에서는 다문화 친구의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친한 친구 수에 따른 아동의 또래관계는 하위 영역 중 도움, 인정, 갈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배타성, 자기표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도움에서는 친한 친구가 있다고 인지하는 아동이 친한 친구가 없다고 인지하는 아

dCollection @ jeju

동보다 또래 간 도움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인정에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나 평균값에 대한 차이는 확인 할 수는 없었으나 평균값을 확인하였을 때 친한 친구가 없다고 인지하는 아동보다 친한 친구가 있다고 인지하는 아동이 또래 간 인정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갈등에서는 친한 친구가 없다고 인지하는 아동이 친한 친구가 있다고 인지하는 아동보다 또래 간 갈등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JEJU NATIONAL UNIVERSITY 1952
JEJU 1952
제주대학교

dCollection @ jeju

2. 아동의 사회적 기술

2) 아동의 사회적 기술

<표Ⅳ-2> 아동의 사회적 기술

(N=544)

하위영역		협동성	주장성	공 감	자기통제
성 별	남(n=284)	3.29 .59	3.15 .65	3.25 .68	3.06 .58
	여(n=260)	3.42 .59	3.29 .59	3.58 .67	3.14 .60
	t	-2.640**	-2.564*	-5.618***	-1.710
학년별	5학년(n=279)	3.38 .60	3.23 .67	3.38 .77	3.13 .62
	6학년(n=265)	3.31 .58	3.20 .58	3.43 .61	3.06 .56
	t	1.285	.415	-.819	1.345
다문화 친 구	있다(n=141)	3.47 .62	3.40 .62	3.52 .63	3.21 .60
	없다(n=403)	3.32 .58	3.17 .62	3.38 .71	3.07 .59
	t	2.494*	3.764***	2.058*	2.409*
친구 수	없음(n=4)	24.25b 5.12	23.25b 7.80	25.25b 10.87	27.00b 6.16
	1~3명(n=68)	28.99a 7.17	29.88a 7.17	32.46a 6.67	30.65a 5.39
	4~6명(n=123)	30.32a 5.70	30.32a 5.71	32.66a 6.05	30.01a 5.41
	7~9명(n=61)	31.64a 4.77	31.64a 4.77	33.82a 5.70	30.16a 5.55
	10명 이상(n=288)	33.75a 6.10	33.75a 6.10	35.21a 7.37	31.72a 6.21
	F	6.011***	12.570***	5.916***	2.808*

*p<.05, **p<.01, ***p<.001

dCollection @ jeju

<표Ⅳ-2>에 의하면 아동의 사회적 기술 전체 평균점수는 3.27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협동성 3.35(SD=.59), 주장성 3.22(SD=.63), 공감 3.40(SD=.70), 자기통제 3.10(SD=.59) 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들이 사회적 기술의 하위 영역 중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주장하고 상호간의 감정에 공감하며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하는 협동적인 면이 다른 영역에 비하여 조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기술은 하위 영역 중 협동성, 주장성, 공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기술의 하위영역인 협동성에서 여아(M=3.42)가 남아(M=3.2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p<.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는 여자아동이 남자아동보다 또래집단 안에서 도움정도가 좀 더 높음을 의미한다. 주장성에서는 여아(M=3.29)가 남아(M=3.15)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여자아동이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을 주장하는데 있어서 좀 더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감에서 여아(M=3.58)가 남아(M=3.25)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났고 p<.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여자아동이 상호간의 이해 및 공감하는 부분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적 기술의 하위영역 중 자기통제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기술의 모든 하위영역은 학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친구 유무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기술은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기술의 하위영역인 협동성에서 다문화 친구가 있는 아동(M=3.47)이 다문화 친구가 없는 아동(M=3.3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는 다문화의 친구가 있는 아동이 또래집단 안에서 서로 협동하여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주장성에서는 다문화 친구가 있는 아동(M=3.40)이 다문화 친구가 없는 아동(M=3.1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p<.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다문화의 친구가 있는 아동이 자기의 생각을 더 잘 주장함을 의미한다. 공감에서는 다문화의 친구가 있는 아동(M=3.52)이 다문화 친구가 없는 아동(M=3.3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다문화의 친구가 있는 아동이 이해 및 공감 부분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기통제에서는 다문화 친구가 있는 아동(M=3.21)이 다문화 친구가 없는 아동(M=3.0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는 다문화의 친구가 있는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는 기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dCollection @ jeju

친한 친구 수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기술은 모든 하위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협동성에서는 친한 친구가 있다고 인지하는 아동이 친한 친구가 없다고 인지하는 아동보다 또래 간 도움과 자료를 공유하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주장성에서는 친한 친구가 없다고 인지하는 아동보다 친한 친구가 있다고 인지하는 아동이 주장성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공감에서는 친한 친구가 없다고 인지하는 아동보다 친한 친구가 있다고 인지하는 아동이 또래 간 관심과 공감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자기통제에서는 친한 친구가 없다고 인지하는 아동보다 친한 친구가 없다고 인지하는 아동이 또래 간 갈등 상황에서의 좀더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JEJU NATIONAL UNIVERSITY 1952
제주대학교
JEJU 1952

dCollection @ jeju

3.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3)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표Ⅳ-3>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N=544)

하위영역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
성 별	남(n=284)	3.42 .76	3.14 .64	3.33 .70	3.47 .81
	여(n=260)	3.56 .76	3.36 .69	3.39 .65	3.68 .73
	t	-2.158*	-3.891***	-1.135	-3.175**
학년별	5학년(n=279)	3.45 .79	3.24 .69	3.42 .69	3.70 .78
	6학년(n=265)	3.53 .73	3.25 .65	3.30 .67	3.44 .75
	t	-1.232	-.259	2.079*	3.913***
다문화 친 구	있다(n=141)	3.58 .74	3.35 .60	3.46 .69	3.69 .75
	없다(n=403)	3.45 .77	3.21 .69	3.33 .68	3.54 .78
	t	1.661	2.196*	1.845	2.023*
친구 수	없음(n=4)	13.75b 1.89	13.00b 6.48	12.75b 5.32	14.50b 6.35
	1~3명(n=68)	16.81a 3.79	15.22a 3.13	16.26a 3.42	17.44a 3.56
	4~6명(n=123)	16.98a 3.61	15.65a 3.39	16.03a 3.14	17.32a 3.60
	7~9명(n=61)	17.26a 3.12	15.61a 3.23	16.49a 2.90	17.26a 3.86
	10명 이상(n=288)	17.85a 4.00	16.89a 3.25	17.35a 3.47	18.39a 3.96
	F	2.740*	6.903***	5.630***	3.298*

*p<.05, **p<.01, ***p<.001

dCollection @ jeju

<표Ⅳ-3>에 의하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전체 평균점수는 3.42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 3.49(SD=.76),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 3.25(SD=.67),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 3.36(SD=.68),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 3.57(SD=.60) 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들이 학교생활적응의 하위 영역 중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 정도와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하는 면이 다른 영역에 비하여 조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은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에서 여아(M=3.56)가 남아(M=3.4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는 여자아동이 남자아동보다 담임교사와의 적응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은 여아(M=3.36)가 남아(M=3.1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p<.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는 여자아동이 남자아동보다 교우관계에 적응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에서는 여아(M=3.68)가 남아(M=3.4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p<.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는 여자아동이 남자아동보다 학교규칙에 적응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 중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영역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은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에서 5학년(M=3.42)이 6학년(M=3.3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는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이 6학년 아동보다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에서는 5학년(M=3.70)이 6학년(M=3.4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p<.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이 6학년 아동보다 학교규칙에 적응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 중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과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에서는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문화 친구 유무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은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에서 다문화의 친구가 있는 아동(M=3.35)이 다문화의 친구가 없는 아동(M=3.2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dCollection @ jeju

보여주었다. 다문화의 친구가 있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학교친구와의 관계가 좋으며 친구와의 적응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에서는 다문화의 친구가 있는 아동(M=3.69)이 다문화의 친구가 없는 아동(M=3.5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다문화의 친구가 있는 아동이 학교규칙에도 잘 적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과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에서는 다문화의 친구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친한 친구 수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은 모든 하위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에서는 친한 친구가 있다고 인지하는 아동이 친한 친구가 없다고 인지하는 아동보다 담임교사와의 관계가 좋고 적응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에서는 친한 친구가 없다고 인지하는 아동보다 친한 친구가 있다고 인지하는 아동이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고 적응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에서는 친한 친구가 없다고 인지하는 아동보다 친한 친구가 있다고 인지하는 아동이 학교에서 수업태도나 공부 등 학습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에서는 친한 친구가 없다고 인지하는 아동보다 친한 친구가 없다고 인지하는 아동이 학급 규칙을 준수하고 적응하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Collection @ jeju

4. 아동의 또래관계와 사회적 기술의 상관관계

아동의 또래관계와 사회적 기술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Ⅳ-4>과 같다.

<표Ⅳ-4> 또래관계와 사회적 기술의 상관관계

	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또래관계	①도 움	1.00								
	②배타성	.598***	1.00							
	③인 정	.582***	.596***	1.00						
	④자 기 표 현	.303***	.232***	.280***	1.00					
	⑤갈 등	.358***	.304***	.403***	.560***	1.00				
사회적 기술	⑥협동성	.400***	.302***	.399***	.706***	.733***	1.00			
	⑦주장성	.495***	.395***	.497***	.531***	.769***	.703***	1.00		
	⑧공 감	.559***	.408***	.459***	.526***	.546***	.654***	.704***	1.00	
	⑨자 기 통 제	.319***	.238***	.341***	.719***	.708***	.751***	.630***	.549***	1.00

***p<.001

상관분석 결과는 <표Ⅳ-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아동의 또래관계의 하위영역과 사회적 기술의 하위영역사이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또래관계의 하위영역인 도움과 배타성, 인정, 자기표현 그리고 갈등은 사회적 기술의 하위영역인 협동성과 주장성, 공감, 자기통제와 서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 또래관계의 하위 영역 중 도움은 협동성(r=.400, p<.001), 주장성(r=.495, p<.001), 공감(r=.559, p<.001), 자기통제(r=.319, p<.001)와 유의미한 정

dCollection @ jeju

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집단 안에서 상호간의 도움이 잘 이루어지는 아동일수록 자신의 생각과 의견 조절 및 주장이 잘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호간의 이해 및 공감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배타성은 협동성(r=.302, p<.001), 주장성(r=.395, p<.001), 공감(r=.408, p<.001), 자기통제(r=.238, p<.0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타성이 높을수록 협동성, 주장성, 공감 및 자기통제기술이 높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정은 협동성(r=.399, p<.001), 주장성(r=.497, p<.001), 공감(r=.459, p<.001), 자기통제(r=.341, p<.0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타인과의 인정 및 수용이 잘 이루어지는 아동일수록 협동이 잘 이루어지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해주고 자기조절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기표현은 협동성(r=.706, p<.001), 주장성(r=.531, p<.001), 공감(r=.526, p<.001), 자기통제(r=.719, p<.0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표현을 잘 하는 아동들이 또래와 서로 협동이 잘되고 상호간의 이해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갈등은 협동성(r=.733, p<.001), 주장성(r=.769, p<.001), 공감(r=.546, p<.001), 자기통제(r=.708, p<.0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에서 갈등이 클수록 협동성, 주장성, 공감, 자기통제 기술이 높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래관계 안에서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상호간의 인정 및 수용정도가 높으며 자기표현 정도가 높은 아동일수록 타인과의 협동성 및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을 주장하고 타인을 공감하며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dCollection @ jeju

5. 아동의 또래관계와 학교생활적응의 상관관계

아동의 또래관계와 학교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Ⅳ-5>와 같다.

<표Ⅳ-5> 또래관계와 학교생활적응의 상관관계

	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또래관계	①도 움	1.00								
	②배타성	.598***	1.00							
	③인 정	.582***	.596***	1.00						
	④자 기 표 현	.303***	.232***	.280***	1.00					
	⑤갈 등	.358***	.304***	.403***	.560***	1.00				
학교생활적응	⑥담 임 교 사	.255***	.173***	.278***	.418***	.527***	1.00			
	⑦학 교 친 구	.460***	.391***	.493***	.430***	.553***	.525***	1.00		
	⑧학 교 공 부	.259***	.203***	.308***	.553***	.611***	.555***	.603***	1.00	
	⑨학 교 규 칙	.251***	.222***	.295***	.521***	.579***	.539***	.580***	.663***	1.00

***p<.001

상관분석 결과는 <표Ⅳ-5>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아동의 또래관계의 하위영역과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사이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Collection @ jeju

아동의 또래관계의 하위영역인 도움과 배타성, 인정, 자기표현 그리고 갈등은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인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과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과 서로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 또래관계의 하위 영역 중 도움은 담임교사(r=.255, p<.001), 학교친구(r=.460, p<.001), 학교공부(r=.259, p<.001), 학교규칙(r=.251,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 안에서 도움을 많이 받는 아동일수록 담임교사 및 친구와의 관계가 친밀하며 학교공부와 학교규칙 적응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배타성은 담임교사(r=.173, p<.001), 학교친구(r=.391, p<.001), 학교공부(r=.203, p<.001), 학교규칙(r=.222,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타성이 높을수록 친구·교사와의 관계, 학교공부, 학교 규칙 적응력이 높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정은 담임교사(r=.278, p<.001), 학교친구(r=.493, p<.001), 학교공부(r=.308, p<.001), 학교규칙(r=.295,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많이 받을수록 교우관계 및 담임교사와의 관계가 좋으며 학교공부와 학교규칙에도 잘 적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기표현은 담임교사(r=.418, p<.001), 학교친구(r=.430, p<.001), 학교공부(r=.553, p<.001), 학교규칙(r=.521,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잘 표현하는 아동일수록 학교생활 적응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갈등은 담임교사(r=.527, p<.001), 학교친구(r=.553, p<.001), 학교공부(r=.611, p<.001), 학교규칙(r=.579,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에서 갈등이 클수록 교사 및 친구와의 관계, 학교공부, 학교규칙 적응력이 높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의 또래관계에서 상호간의 도움과 타인을 수용하며 인정, 자기표현 등 긍정적 측면이 높을수록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dCollection @ jeju

6. 아동의 사회적 기술과 학교생활적응의 상관관계

아동의 또래관계와 학교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Ⅳ-6>과 같다.

<표Ⅳ-6> 사회적 기술과 학교생활적응의 상관관계

	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사회적 기술	①협동성	1.00							
	②주장성	.703***	1.00						
	③공 감	.654***	.704***	1.00					
	④자기통제	.751***	.630***	.549***	1.00				
학교생활적응	⑤담임교사	.538***	.530***	.426***	.574***	1.00			
	⑥학교친구	.593***	.617***	.528***	.562***	.525***	1.00		
	⑦학교공부	.679***	.558***	.432***	.582***	.555***	.603***	1.00	
	⑧학교규칙	.653***	.506***	.482***	.596***	.539***	.580***	.663***	1.00

***p<.001

상관분석 결과는 <표Ⅳ-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아동의 사회적 기술의 하위영역과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사이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사회적 기술의 하위영역인 협동성과 주장성, 공감, 그리고 자기통제는 사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인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과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과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dCollection @ jeju

분석결과 사회적 기술의 하위 영역 중 협동성은 담임교사(r=.538, p<.001), 학교친구(r=.593, p<.001), 학교공부(r=.679, p<.001), 학교규칙(r=.653,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과의 협동이 잘 이루어지는 아동일수록 담임교사 및 학교친구와의 관계, 학교공부, 학교규칙 적응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주장성은 담임교사(r=.530, p<.001), 학교친구(r=.617, p<.001), 학교공부(r=.558, p<.001), 학교규칙(r=.506,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잘 주장하는 아동의 경우 학교생활적응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공감은 담임교사(r=.426, p<.001), 학교친구(r=.528, p<.001), 학교공부(r=.432, p<.001), 학교규칙(r=.482,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타인과의 이해 및 공감이 잘 이루어지는 아동일수록 담임교사 및 학교친구와의 관계가 좋으며 학교공부, 학교규칙에 잘 적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통제는 담임교사(r=.574, p<.001), 학교친구(r=.562, p<.001), 학교공부(r=.682, p<.001), 학교규칙(r=.596,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가 잘 된다면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 상호간의 협동성과 주장성, 타인에 대한 이해 및 공감, 상호간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dCollection @ jeju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또래관계가 사회적 기술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또래관계와 사회적 기술 그리고 또래관계와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아동의 또래관계가 사회적 기술 및 학교생활적응에 서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별에 따른 또래관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또래관계의 5개의 하위영역 중 갈등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도움, 배타성, 인정 그리고 자기표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아동이 남자아동보다 또래관계에서 타인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상호간의 인정 태도 및 수용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이호선(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학년에 따른 또래관계의 차이를 살펴보면 또래관계의 하위영역 중 자기표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에서 6학년 아동들이 5학년 아동들보다 자기표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다문화의 친구 유무에 따른 또래관계의 차이를 살펴보면 또래관계의 하위영역 중 인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 친구가 있는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상호간 인정 및 수용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친한 친구 수에 따른 또래관계의 차이를 살펴보면 또래관계의 하위영역 중 도움, 인정, 갈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한 친구가 있다고 인지하는 아동이 친한 친구가 없다고 인지하는 아동보다 또래 간 도움정도가 높고 인정하고 수용을 잘하며 갈등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dCollection @ jeju

둘째, 아동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기술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기술의 4개의 하위영역 중 자기통제는 차이가 없었으나 협동성, 주장성 그리고 공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아동이 남자아동보다 또래집단 안에서 도움을 주고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주장하며 타인에 대한 이해 및 공감하는 사회적 기술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년에 따른 사회적 기술의 차이를 살펴보면 사회적 기술의 모든 하위영역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의 친구 유무에 따른 사회적 기술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기술의 모든 하위영역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의 친구가 있는 아동들이 그렇지 않는 아동들보다 상호간 협동이 잘 이루어지고 자기의 생각을 잘 주장하며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정도가 높고 자기감정 통제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친한 친구 수에 따른 사회적 기술의 차이를 살펴보면 사회적 기술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한 친구가 있다고 인지하는 아동이 친한 친구가 없다고 인지하는 아동보다 또래 간 도움 정도가 높고 주장성 및 타인의 느낌과 감정을 공감하고 갈등 상황에서의 자기통제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아동의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교생활적응의 4개의 하위영역 중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 그리고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아동이 남자아동보다 담임교사와 친구 그리고 학교규칙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배기명(1983), 김관희·이경희(1997), 이미라(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학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 중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과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에서 유의미한 타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5학년 아동들이 6학년 아동들보다 학교공부와 학교 규칙에 대한 적응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문화의 친구의 유무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보면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 중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과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의 친구가 있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학교친구와의 관계가 좋으며 친구와의 적응력이 높고 학교규칙에 적응을 잘 적응함을 알 수 있다. 친한 친구 수에

dCollection @ jeju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한 친구가 있다고 인지하는 아동이 친한 친구가 없다고 인지하는 아동보다 담임교사, 학교친구와의 관계가 좋으며 수업태도나 학습정도가 높으며 학교규칙을 준수하고 잘 적응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아동의 또래관계와 사회적 기술 및 학교생활적응의 상관관계는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사회적 기술이 좋은 아동이 자신의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고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며 또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래관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에서 모두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호선(2001), 차유림(2001), 장성순(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결론적으로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또래관계와 사회적 기술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아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이나 주변 환경에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적절한 사회적 기술이 필요하며 이는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2. 제언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역의 4개 학교 초등학생 5, 6학년을 대상으로 조사·연구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아동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다른 지역의 초등학생들에게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포함되지 않은 청소년기의 중학생, 고등학생 등 초기 청소년기 이외의 모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는 것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dCollection @ jeju

둘째,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해서만 각 변인들을 측정하였는데 관찰법과 면접법 등과 같은 방법을 병행하여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정확한 연구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 결과 아동의 또래관계와 사회적 기술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에서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남으로써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또래관계 및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JEJU NATIONAL UNIVERSITY 1952
제주대학교
JEJU 1952

dCollection @ jeju

참 고 문 헌

강명구(1999). 참만남 집단 상담이 초등학교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여경(2003).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 중재를 위한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혜정(2005).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기개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숙영(1997). 중학생의 학교적응, 학업성취, 정서 및 문제행동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안영・강영신(2006). 성격심리학. 서울: 학지사

박진재(2002). 아동의 또래관계 증진을 위한 사회적 기술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주혜(1999). 단짝 친구관계와 학교생활적응: 초등학생 4학년과 중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희옥(2000). 또래지지와 대인관계 갈등 대처방법 및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19-33.

양윤란(2004). 또래관계기술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자기제시 기대와 자기 통찰의 매개 중재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경님(2006). 아동의 개인, 가족변인 및 학교적응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5(1), 31-44.

이미라(2007). 사회적 기술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사회적 기술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승연(2009). 어머니의 또래관계 관리전략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질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양육방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정(2009). 만 3세 유아-교사의 애착안정성과 사회적 기술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배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dCollection @ jeju

이은혜(2008). 학급단위 사회적 문제해결기술 프로그램이 아동의 사회적 문제해결기술, 또래관계,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춘자(2000). 사회적 기술훈련이 아동의 교우관계, 학급활동 및 사회적 추론능력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현숙(2003). 사회적 기술 훈련프로그램이 수줍음 아동의 사회적 기술,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호선(2001). 아동의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성순(2006). 초등학생의 또래관계와 학교적응과의 관계: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성예(2006).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또래관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옥분(2002).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정옥분(2007).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정옥분・임정하(1997).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8(1), 163-175.

정유진(1999).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의 관련 변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지순연(2001). 사회적 기술 훈련이 고립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미영(1993). 배척학생의 자기성장 훈련이 사회성과 원인귀속 차원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석란(2002). 어린이의 또래관계. 서울: 다음세대

황경미(1998). 초등학교 아동의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agwell, C. L, Newcomb, A. F., Bukowski, W. M(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4

dCollection @ jeju

Bukowski, W. M., & Hoza, B. (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In T. J. Berndt, & G. W. Ladd(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15-45. New York : Wiley.

Bukowski, W. M., Boivin, M., & Hoza, B. (1994). Measuring Friendship Quality During Pre and Early Adolescence: Th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Friendship Qualities Scale. Journal of Social and Relationship, 11, 471-484.

Elliot, D. S.(1972). Delinquency and the School. Washington D.C.: Youth Development and Delinquency Prevention Administration.

Erwin, P. G(2001, 박영신 역).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친구관계. 서울: 시그마 프레스.

Ford, M. E.(1982). Social cogni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Development Psychology, 18, 323-340.

Gresham, F. M., & Horner R. H.(2001). Interpreting outcomes of social skills training for students with high-incident disabilities Exceptional Children, 67, 331-344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611-621

Phillips, E. L.(1985). Social Skills: History and Perspect. In 1. La`Abate & M. A. Milan <Eds.> Handbook of Social Skills Training and Research(pp.29-47)

Collection @ jeju

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er Relations and Social Skills & School Life Adaptation

Ji-Hyun Im

Supervised by Professor Dr. Yang-Soon Kim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find about if there is any difference in peer relations and social skills & school life adaptatio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factors with the subject of fifth- and sixth grades children of a elementary schools. And to give a help for development of a program that can improve social skills to enhance children's school life adaptation and maintain friendly peer relations by understand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m.

The total of 544 children composed of 284 boys and 260 girls of 4 elementary schools in the Jeju region was selected as an object of study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The scale of peer relations, the scale of social skill evaluation and the scale of school life adaptation were used as a measuring tool. And t-test and ANOVA were carried out to examine the difference in peer relations and social skills & school life adaptatio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factors of children and the correlation analysis of Pearson was carried out to find out these relationships.

The major analysis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differences of peer relations according to the gender of children, there was no difference in conflict among 5 subordinate domains of peer relations. But it appear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help, exclusiveness, recognition and self-expression.

Collection @ jeju

It means that girls positively interact with other persons in peer relations than boys and has high recognition attitude and a high reception degree between each other. And, if the difference of peer relations according to the school year is examined, it appear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elf-expression among subordinate domains of peer relations.

It means that sixth grade children have a higher self-expression degree than fifth grade children. If the difference of peer relations according to have or have not a multicultural friends was examined, it appear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recognition among subordinate domains of peer relations. Namely, it means that children having multicultural friends have high recognition and a high reception degree between each other in peer relations.

The difference of peer relations according to the number of close friends was examined, it appear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help, recognition and conflict among subordinate domains of peer relations. It can be understood that children recognizing that there are close friends have a higher help degree between peers, admit/accept better and a lower conflict degree than children recognizing that there are no close friends.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difference of social skills according to the gender of children, it appeared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in self-control among 4 subordinate domains of social skills, bu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ooperativity, assertation and sympathy.

Namely, it means that girls have higher social skills, which give a help, assert thinking and opinion of their own and understand & sympathize with other people, than boys . But if the difference of social skills according to the school year was examined, it appeared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subordinate domains of social skills.

Also, as a result of examining difference of social skills according to have or have not a multicultural friends, it appear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subordinate domains of social skills.

Collection @ jeju

Namely, it can be understood that children having multicultural friends cooperate better between each other, assert his or her thinking better, has a higher degree of understanding and acception of other people and control their own feelings better than children without having multicultural friends.

The difference of social skills according to the number of close friends was examined, it appear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subordinate domains of social skills. It can be understood that children recognizing that there are close friends have a higher help degree and assertation between peers, sympathize feeling & emotion of other people better and have a higher self-control degree under the conflict circumstances than children recognizing that there are no close friends.

Third, as a result of examining difference of school life adaptation according to the gender of children, there was no difference in adaptation to school study among 4 subordinate domains of school life adaptation, but it appear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daptation to a classroom teacher, adaptation to school friends and adaptation to school rules.

The difference of school life adaptation according to the school year was examined, it appear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daptation to school study and adaptation to school rules among of subordinate domains of school life adaptation. It can be known that fifth-year children of a primary school have higher adoptability to school study and rules than sixth-year children.

The difference of school life adaptation according to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multicultural friends was examined, it appear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daptation to school friends and adaptation to school rules among subordinate domains of school life adaptation.

Children having multicultural friends have better relations with school friends, higher adaptation to friends and better adaptation to school rules than children without having multicultural friends. The difference of school life adaptation

Collection @ jeju

according to the number of close friends was examined, it appear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subordinate domains of school life adaptation.

Children recognizing that there are close friends have better relations with a classroom teacher and school friends, have better class attitude or learning degree, observe school rules better and adapt better than children recognizing that there are no close friends.

Fourth, the correlation of between peer relations, social skills and school life adaptation all showed static correlation. It can be understood that children having good social skills well interact with surrounding environment of their own, form smooth relations with other people and adapt to school life well.

In conclusion, as a result of examining about peer relations, social skills and school life adaptation with the subject of fifth and sixth graders of a primary school, it shows significant correlation each other.

Children need proper social skills that can react to various circumstances or the surrounding environment effectively so as to form positive relationship with other people as a member of the society, and this would become an important key point for forming peer relations.

Collection @ jeju

부 록

Collection @ jeju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아동의 또래관계가 사회적 기술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지의 모든 응답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응답하신 문항들은 본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의 문항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모든 문항에 자신의 평소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한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8. 10.

제주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아동학전공 석사과정

지도교수 : 김 양 순

연 구 자 : 임 지 현

dCollection @ jeju

◈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해주세요.

1. 성별은?
   ① 남자 __
   ② 여자 __

2. 학년은?
   ① 5학년 __
   ② 6학년 __

3. 친한 친구는 몇 명입니까?
   ① 없음 __
   ② 1~3명 __
   ③ 4~6명 __
   ④ 7~9명 __
   ⑤ 10명이상 __

4. 친구 중에 다른 문화권의 친구가 있습니까?
   ① 있다 __
   ② 없다 __

5. 아버지의 학력은?
   ① 초졸 __
   ② 중졸 __
   ③ 고졸 __
   ④ 대졸 __
   ⑤ 대학원이상 __

6. 어머니의 학력은?
   ① 초졸 __
   ② 중졸 __
   ③ 고졸 __
   ④ 대졸 __
   ⑤ 대학원이상 __

7. 종교는?
   ① 기독교 __
   ② 불교 __
   ③ 천주교 __
   ④ 무교 __
   ⑤ 기타 __

8. 경제적 수준은??
   ① 200만원 이하 __
   ② 200~269만원 __
   ③ 270~349만원 __
   ④ 350~419만원 __
   ⑤ 420~499만원 __
   ⑥ 500만원 이상 __

9. 여러분의 가족형태는?
   ① 부모와 자녀 __
   ② 조부모와 부모와 자녀 __
   ③ 한부모와 자녀 __
   ④ 형제·자매 __
   ⑤ 본인 혼자 또는 친척집 __

10. 부모의 직업은?
   ① 아버지 __ ② 어머니 __

<보기>

1. 단순노무자 2. 생산직근로자 3. 운수, 장비운전기사 4. 상점경영(서비스업, 기업)
6. 농장, 목장 경영 7. 예술가 8. 언론인 9. 서비스직 10. 판매직 11. 교사
12. 군경(중령, 경정, 대령, 총경) 13 농업, 임업, 어업 14. 고급기술직(연구직)
15. 사무직·행정 관리직(공무원) 17. 전문직(교수, 법률가, 의사) 18. 주부 19. 없음
20. 기타(적어주세요:)

dCollection @ jeju

◈ 또래관계 검사

※ 다음은 여러분의 친구관계에 대한 검사입니다. 무조건 좋은 대답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태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태도에 ○표를 해주세요.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거의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만약 어떤 아이가 내 물건을 가져가면, 내 친구는 그 아이에게 그걸 되돌려 달라고 말한다.					
2	다른 애들이 내 욕을 하면 내 친구가 감싸 준다.					
3	만약 내가 선생님께 야단맞아서 기분이 좋지 않다면, 내 친구는 나를 위로해 준다.					
4	만약 애들이 나한테 심술궂게 한다면 내 친구는 그 아이들을 말린다.					
5	내 친구는 내 일이 잘 안될 때 위로의 말을 해 준다.					
6	내 친구는 우리 반에서 그 어느 친구보다도 나를 더 좋아한다.					
7	내 친구는 운동장에서 놀 때 거의 나하고만 논다.					
8	내 친구는 거의 모든 것을 나하고만 같이 한다.					
9	내 친구는 내 외모에 대해 좋게 말해 준다.					
10	내 친구는 교실에서 내가 하는 활동에 대해 아주 잘 한다고 이야기 해 준다.					
11	내 친구는 내가 운동이나 게임을 잘 한다고 말해준다.					
12	나와 내 친구는 내가 슬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13	만약 학교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면, 나는 내 친구에게 그 얘길 해 준다.					
14	나는 다른 친구의 흉을 볼 때, 내 친구에게만 살짝 이야기한다.					
15	나는 내 친구에게 비밀 이야기를 잘 한다.					
16	내 친구는 나를 무시하기도 한다.					
17	내 친구는 나에게 다정하게 얘기한다.					
18	내 친구는 나에게 일을 시키기도 한다.					
19	내 친구는 나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					
20	내 친구는 나를 놀린 적이 있다.					

dCollection @ jeju

◈ 학생용 사회적 기술 검사

※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평소 생각하고 느꼈던 점을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표를 해주세요.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거의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친구를 쉽게 잘 사귄다.					
2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를 잘했을 경우, 그 사람에게 “훌륭해”, “멋있어”등으로 칭찬을 해 준다.					
3	다른 아이들이 나를 심하게 때리거나 지나치게 괴롭히려고 할 경우 고민하지 않고 어른에게 도움을 청한다.					
4	우리 반 남자(여학생의 경우), 여자(남학생의 경우) 친구들과의 만남에 자신이 있다.					
5	친구가 화가 나있거나, 혼란 상태에 있거나, 슬퍼하고 있을 경우 그 친구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6	나는 어른이 말씀하시면 귀담아 듣는다.					
7	다른 아이들이 나를 놀려대거나 욕을 하더라고, 신경쓰지 않고 그냥 무시해 버린다.					
8	나에게 골칫거리가 있을 경우 그것에 관해 친구의 도움을 구한다.					
9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하게 될 때는 미리 물어보고 사용한다.					
10	나의 의견이 어른들의 생각과 다른 경우, 싸우거나 논쟁을 벌이지 않으면서도 이를 표현한다.					
11	나중에 어른에게 꾸지람을 듣게 될 만한 일에는 같이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					
12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경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					
13	나는 숙제를 제 시간에 한다.					
14	나는 책상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유지한다.					
15	부모님께서 먼저 시키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집안의 잡일을 돕는 등의 일을 잘 한다.					
16	운동이나 특별활동과 같은 학교 내의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					
17	수업시간 내에 해야 하는 과제나 기타 활동을 정해진 시간에 마친다.					
18	나의 의견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의견과 같지 않을 경우 대화를 통해서 타협한다.					

dCollection @ jeju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거의 그렇다	항상 그렇다
19	수업 중에 장난을 치는 아이들과 어울려서 같이 까불거나 하지 않고 그냥 모르는 척 해버린다.					
20	남자든 여자든 좋아하는 반 친구에게 내가 먼저 같이 놀자고 한다.					
21	친구들이 자신의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잘 들어준다.					
22	부모님과 의견이 다를 때 소란을 피우지 않고 조용하게 마친다.					
23	남자 친구든 여자 친구든 잘 한 행동에 대해서는 칭찬을 할 줄 안다.					
24	다른 사람이 뭔가를 잘 했을 경우 그 사람에게 말로 표현을 해준다.					
25	다른 사람과 마주쳤을 때는 미소를 짓거나 손을 흔들거나 고개를 끄덕하는 등 인사를 한다.					
26	남학생(여학생의 경우), 여학생(남학생의 경우)과 이야기를 시작할 때 불안해하거나 안절부절 하지 않는다.					
27	나는 어른이 나를 벌할 때 화내지 않고 받아들인다.					
28	내가 어떤 친구를 좋아하고 있으면, 그 사실을 말이나 감정 표현을 통해서 그 친구가 알게끔 한다.					
29	친구가 부당한 비난을 받고 있을 경우 그 친구의 편이 되어준다.					
30	사람들과 어울려서 운동이나 게임, 서클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하자고 권한다.					
31	나는 여가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32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화를 내더라도, 내 감정을 잘 조절한다.					
33	나는 부모님의 비난을 화내지 않고 받아들인다.					
34	나는 선생님의 지시에 잘 따른다.					
35	교실에서 벌이는 토론에서는 지나치게 과격하거나 무례하지 않은, 차분하고 교양 있는 말투를 사용한다.					
36	나는 부탁을 들어달라고 친구에게 말한다.					
37	내가 먼저 말을 꺼내서 반 친구들과 대화를 시작한다.					
38	문젯거리나 말다툼이 발생한 경우 그 일에 관해 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다.					
39	남학생(여학생의 경우), 또는 여학생(남학생의 경우)나를 주의 깊게 쳐다보아도 나는 내 감정을 잘 조절한다.					

dCollection @ jeju

◈ **학교생활 적응 검사**

※ 다음은 여러분의 평소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검사입니다. 무조건 좋은 대답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태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태도에 ○표를 해주세요.

* 다음은 여러분들이 담임선생님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묻는 내용입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거의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2. 나는 선생님의 지시와 요구에 잘 따른다.					
3. 나는 선생님 앞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4. 나는 내가 필요로 할 때 선생님께 도움을 청한다.					
5. 나는 선생님이 나에게 하는 꾸중을 잘 받아들인다.					

* 다음은 여러분들이 학교 친구들과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묻는 내용입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거의 그렇다	항상 그렇다
6. 같은 반 친구들은 나를 좋아한다.					
7. 나는 친구가 교과서나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함께 쓴다.					
8. 나는 친구들과의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있다.					
9. 나는 학교에서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는다.					
10. 나는 다른 친구들에게 거친 행동이나 욕 등 사용하지 않는다.					

dCollection @ jeju

* 다음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태도를 묻는 내용입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거의 그렇다	항상 그렇다
11. 나는 자진해서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발표 한다.					
12. 나는 주어진 과제를 제 시간에 끝낼 줄 안다.					
13. 나는 숙제와 학습 준비를 빠짐없이 잘 해 온다.					
14. 나는 공부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거나 장난치지 않는다.					
15. 나는 특별한 이유 없이 결석을 자주 하지 않는다.					

* 다음은 여러분들의 학교의 일반적인 규칙에 대한 적응을 묻는 내용입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거의 그렇다	항상 그렇다
16. 나는 등교 시간, 수업 시간, 쉬는 시간 등을 지켜서 행동한다.					
17. 나는 교실이나 복도에서 질서를 지켜서 행동한다.					
18. 나는 내가 맡은 청소나 역할을 잊지 않고 적극 참여한다.					
19. 나는 급식을 할 때나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볼 때 차례를 잘 지킨다.					
20. 나는 학교건물이나 빌린 친구물건을 소중히 사용한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dCollection @ jeju